

● 新築 圖書館 紹介

■ 승전대학교 도서관

지상 6층, 지하 1층 총건평 3,000평의 건물이지만 1980년 9월에 도서관 건축위원회가 결성되어 1981년 11월에 시공될 때까지 무려 1년동안 도서관측에서 의뢰한 도서관 계획전문가와 도서관측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회의가 수 없이 있던 뒤에 세워진 건물인 만큼 1983년 9월 6일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과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구조, 공간활용, 도서관 비품의 지면배정 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하층의 절반은 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실 같은 어둡한 느낌은 들지않게 자연채광이 잘된 곳으로 638석의 자유열람실과, 가방보관실, 복사실이 마련되어 있고 1층부터는 자료 이용자들 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다. 또한 현관 로비에 설치된 Turnstile을 통하여 출입이 검색된 학생들은 2대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각층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구 도서관에서 9년전부터 실시해오던 완전개가식 제도를 계속했고 인문과학도서실, 사회과학도서실, 자연과학도서실 등 전공분야 도서별로 분방되어 있다. 참고도서실과 정기간행물실은 완전 분리하여 각 방에 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신문열람은 현관 로비 공간에 신문열람 의자를 놓아 일간신문을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여학생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비흡연자용 휴게실과 흡연자용 휴게실을 따로 분리시키어 놓았다.

4층에는 11명씩 앉아서 학문과 연관된 주제를 토의할 수 있는“그룹 토의실”이 세 곳이고, 국문과 영문 타자기를 갖춘 타자실이 두곳으로 학생들이 이용절차를 밟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층에 준비된 5개의 게시판을 통하여 학생들과 도서관 간의 이해와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이용자와 도서관 간의 두꺼운 벽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편 햇빛이 가장 잘드는 1층에 자리한 직원 사무실에는 각층에 있는 방과 연결된 Book Lift와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에서 정리된 도서는 Book Lift를 통하여 각방에 운반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직원들이 모여 회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의실과 차를 끓일 수 있는 주방이 설치된 것은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함양시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항상 쾌적한 평상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냉·온방기와 습도기가 가동되어 있는 상태로서 도서 400,000권을 소장할 수 있고 전체 학생의 35%를 수용할 수 있는 2,062석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고 1,000여명의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25명의 직원과 70명의 근로 학생들은 심장의 역할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